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뜨거운 관심'

70개 기업모집에 200개 기업 몰려… 사전 참여의향 2.8대 1

CEO포럼과 전담 멘토들 컨설팅 지원… 시행착오 최소화

전국최초 지역특화 스마트공장 확산 사업인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이하, 전북형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들의 사전 참여의향이 뜨거웠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70개 지원목표 대비 200개 기업이 사전 참여의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의향서는 정식 사업접수 전에 민간 확산협의체인 '(사)전북-삼성 스마트CEO포럼(이하, CEO포럼)'과 전북형 스마트공장 전담멘토가 참여 의향 기업에 대한 사업 사전설명과 필요사항 사전 안내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약 1달간 진행된 사전의향 접수기간에는 식품제조기업부터 화장품, 자동차, 이차전지 등 다양한 산업군과 14개 시군의 제조기업이 참여했다.

전북자치도는 접수된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CEO포럼과 전담멘토가 함께 기업을 방문해 사업에 대한 사전설명으로 이해도 제고와 현장 혁신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한다.

한편, 이번 참여의향서는 기업의 관심과 사전컨설팅을 위해 기업정보, 요청사항 등 간소화한 의향서였으며, 전북자치도는 공식 사업계획서를 오는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자치도청과 전북테크노파크 누리집에 게재된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사업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전북자치도는 접수되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기술, 혁신 전담멘토들이 도입기업의 생산공정, 보유설비, 요구사항 및 준비상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최적의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스마트공장 구축과 제조혁신 전문가들이 6~10주가량 기업에 상주하며 혁신 교육(3정5S), 간편 자동화 기구물 제작 등 혁신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선정된 도입기업에는 전북테크노파크가 제공하는 스마트공장 실무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토록하고, 전담멘토들이 상주하는 기간 지속적인 시스템 활용법을 숙달시켜 제조현장의 스마트공장이 안착되도록 지원한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미래산업국장은 "새로운 산업환경에 중소기업이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스마트공장으로의 혁신이 필요하다"라며, "도내 중소기업들의 스마트 자동화 구축에 따른 사전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 CEO포럼과 전담멘토의 컨설팅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적극 지원하여 스마트공장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재훈기자

전북특별자치도청은 청사 잔디광장 놀이마당 내 맨발 황톳길을 조성했다.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잔디광장 내 '맨발 황톳길' 개장

전북특별자치도청은 청사 잔디광장 놀이마당(의회 앞 잔디광장) 내 맨발 황톳길을 조성해 4일 개장한다고 밝혔다.

청사 내 황톳길은 맨발로 걷고 싶은 도민들의 제안을 통해 조성한 것으로 길이 140m, 폭 1.5m, 두께 15㎝의 네모난 형태의 황톳길과 세족장 1개소로 구성됐다.

누구나 쉽게 접근해 이용하도록 맨발로 걷기 좋은 황톳길뿐만 아니라 신발로 걸을 수 있는 폭 1m의 자갈길, 그늘막이 설치된 잔디마당, 입구 세 곳의 화강 디딤석을 설치했다.

작년 12월에 조성된 황톳길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겨울철은 미개방했다가 3월에 개방했다.

황철호 자치행정국장은 "놀이마당 내 노후된 야자매트 보행로를 맨발로 걷기 좋은 황톳길로 조성해 일상에 지친 도민들이 도심 속에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힐링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청사가 도심 속 행복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민·관 합동 안전문화 캠페인

해빙기 안전사고 및 봄철 산불 예방 행동요령 집중 홍보

전북특별자치도가 4일 부안 내소사 일원에서 부안군, 국립공원관리공단, 민간안전 관련 단체 등 60여 명과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으로 행락철 등산객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과 봄철 산불 국민행동요령 등을 홍보하고, 지역 주민이 안전 위험요소를 직접 발굴하고 신고하는 '안전한바퀴' 운동과 병행 추진했다.

또한, 해빙기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입산 시 낙석 위험이 높은 계곡이나 바위 능선의 출입을 삼가고 화기·인화 물질 소지를 금지하는 등의 안전 수칙을 중점 홍보했다.

도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안전교육 등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을 실시해 도민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기, 계절에 맞는 안전위험 요인을 선정해 14개 시·군 및 민간단체와 지속적인 안전문화 활동을 통해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 등 도민 안전 인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4일 부안 내소사 일원에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진행했다.

윤동욱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도민들이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과 재난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365일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시군, 재난 관련 민간 단체와 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 청년, 구직단념 말고 도전하세요"

전북자치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252명 모집

전북특별자치도가 구직을 단념한 청년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북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252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구직단념 청년에게 심리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구직의욕을 고취해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처음 선정된 이후 올해 국비 11억 7천만원을 확보해 총사업비 12억 8,000만원 규모로 추진된다.

세부 프로그램은 도전(5주 이상), 도전+중기(15주 이상, 신설), 도전+장기(25주 이상)로 진행되며, 1:1 상담 및 집단프로그램을 통한 자신감 회복, 생활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참여하는 청년에게 유형별로 각각 50만원, 220만원, 350만원의 수당 및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모집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및 직업훈련 이력이 없고 구직 문답표 점수가 21점 이상인 만 18~34세 이하 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 청년 등이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지역특화 요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인 만 18~39세 이하 청년까지 확대 지원한다.

실제로 지난해 프로그램을 수료한 구직단념 청년은 "어쩌면 나도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처음 시도해 보는 것들에 대한 도전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참여 후기를 남겼다.

천세창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많은 청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무한한 잠재력을 펼치고 구직의욕을 고취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워크넷 또는 전화(전북청년도전지원사업단 063-272-4920), 블로그(https://blog.naver.com/humanjnc)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재훈기자

자치도, '다함께 민생시책' 소상공인 지원 추진

온라인 판로지원 등 4개 사업… 7일부터 모집 공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7일부터 도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사업은 약 12억원 규모로, △전북천년명가 육성,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전북민생솔루션,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등 우수 소상공인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폐업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북천년명가 육성사업은 도내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온 전통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경영지원금(1,800만원), TV 홍보영상 제작, 인증현판 제공, 멘토링 및 컨설팅, 특례보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올해는 6개 업체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은 유통환경의 비대면·온라인화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온라인 판매와 홍보에 필요한 사진·상세페이지 및 홍보영상을 제작 지원하는 '온라인판매기반조성' 분야와 대형플랫폼을 통한 판로연계와 맞춤형 제품 개선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직접판매기반지원' 분야로 나누어 지원한다.

전북민생솔루션 사업은 도내 소상공인에 대한 현장밀착형 지원 및 종합안내를 위한 사업으로, △상담솔루션(소상공인 전문 상담 콜센터(☎1588-0700) 운영 및 종합안내), △현장솔루션(찾아가는 교육 및 컨설팅), △심층솔루션(맞춤형 컨설팅 및 직접지원사업 운영) 등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속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은 폐업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사업장 원상복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1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각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www.jbsos.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소상공인 전문 상담 콜센터(☎1588-0700)로 문의하면 된다.

천세창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다함께 민생시책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민생지원을 통해 경제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데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며,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